

김민선, 3년3개월 만에 KLPGA투어 우승...개인통산 5승

3년 3개월만 투어 대회 우승컵...시즌 첫 톱 10 진입

2위 이소영, 2년연속 준우승...상금·대상포인트 선두

김민선(25·한국토지신탁)이 3년3개월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개인 통산 5승을 달성했다. 김민선은 5일 강원도 용평의 버치힐 골프클럽(파 72·6434야드)에서 열린 '백콜·용평리조트 오픈 with SBS(총상금 6억원)' 대회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김

민선은 공동 2위 그룹을 1타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전날 2라운드를 마치고 단독선두에 올라선 김민선은 최종라운드에서도 기세를 이어가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김민선은 2017년 4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 우승 이후 3년 3개월 만에 투어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올 시즌 첫 톱 10 진입이고 개인 통산 5승을 기록했다.

4언더파 68타를 작성해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한 이소영(23·롯데)은 성유진(20·한화큐셀)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2년 연속 이 대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상금 5850만원을 수령, 시즌 상금 3억5543만원으로 이 부문 1위로 점프했다. 이소영은 상금과 대상 포인트 2개 부문 모두에서 선두를 달렸다. 이어 노승희(19·요진건설), 이슬기(21·CJ오쇼핑), 현세린(19대방건설)이 9언더파 207타로 공동 4위를 마크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최혜진(21·롯데)은 8언더파 208타로 공동 7위를 기록했다.



뉴스 1 김민선



복귀 시동 건 'KT 마무리' 이대은 이강철 감독 "다음주도 콜업 가능"

한달만에 2군 실전경기 등판해 1이닝 무실점·145km

KT 위즈의 기존 마무리 투수 이대은이 한 달 만에 2군 실전경기에 등판, 1이닝을 소화했다. 이르면 다음주 1군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은은 5일 함평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퓨처스리그 KIA 타이거즈와 경기에 등판해 1이닝 동안 3타자를 상대하며 탈삼진 1개 포함 무실점을 기록했다. 최고구속은 145km를 마크했다. 올 시즌 마무리 투수로 출발했지만 부진과 부상이 겹쳐 2군에 내려가 있는 이대은은 5월31일과 6월2일 퓨처스 경기에 등판

했으나 이후 다시 통증이 재발, 회복에 집중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불펜피칭부터 서서히 몸 상태를 끌어올린 이대은은 실전 경기에도 등판,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키움 히어로즈와 홈 경기를 앞둔 이강철 감독은 이대은의 실전피칭에 대해 "코치진 판단이 필요하다. 아직 투수코치랑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돼 있는 선수다. 자기 불만 던진다면 다음 주라도 콜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용훈 검토회장, 대한체육회 체육유공자 선정

대한체육회 100주년 기념 '지방체육 육성' 부문 체육유공자 선정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김창준)는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 기념 체육유공자에 최용훈(67) 광주광역시검도회장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해외동포체육 부문에서 대한민국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한 체육유공자를 추천받아 수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최용훈 회장이 전문체육 진흥 지방체육 육성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게 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01년부터 광주시검도회장을 지내며 지역 검도 종목 발전은 물론 국가 체육발전

을 위해 몸심양면 헌신해 왔다. 지역 내 학생선수 및 검도팀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훈련 장비 보급, 우수선수 장려금 지원 등 선수 육성 환경을 개선해 왔고, 학교법인 유당학원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도 매진했다. 광주 관내 유일한 학교운동부인 서석중·고등학교 검도팀을 육성하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또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며 검도인 주변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검도발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유당학원에서 주최하는 유당기 전국 생활체육 검

도대회는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대회로 검도 대중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며 검도인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국제교류를 통해 검도 세계화에도 일조했다. 일본 돗토리현(1997년~1999년), 구마모토현(2007년), 호주 멜버른 대학교 검도클럽(2017년~현재) 등과 국제 친선교류를 추진하며 검도 기술과 트레이닝 방법 전수, 문화와 학술 교류 등을 통해 검도 세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과 국가 검도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한편,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홀(올림픽공원 내)에서 열린다. 부문별 체육유공자는 이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토론토 단장 "류현진, 시즌 준비 끝...개막전 등판 가능"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서 훈련 중...오늘 서머캠프 치를 예정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로스 앳킨스 단장이 팀의 에이스 류현진(33)을 향한 깊은 믿음을 드러냈다. 앳킨스 단장은 5일(이하 한국시간) 현지 취재진과 진행한 화상 인터뷰를 통해 "류현진은 매우 좋은 몸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에 따르면 류현진은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에서 훈련 중이다. 오는 6일에는 연고지인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센터로 이동해 서머캠프를 치를 예정이다. 앳킨스 단장은 "류현진은 현재 좋은 몸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개막전 등판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60경기 단축시즌으로 치러지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는 오는 24일 또는 25일 개막할 예정이다. 지역 매체 '토론토 선'은 앳킨스 단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며 "류현진이 합류하면서 토론토는 지난해보다 안정적인 선발진을 구축했다"며 "류현진이 단축시즌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준다면 토론토 성적도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앳킨스 단장은 "5일마다 믿을 수 있는 투수가 등판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며 류현진의 역할을 강조한 뒤 "우리는 재능있는 투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흥분하고 있다"고 개막전 앞둔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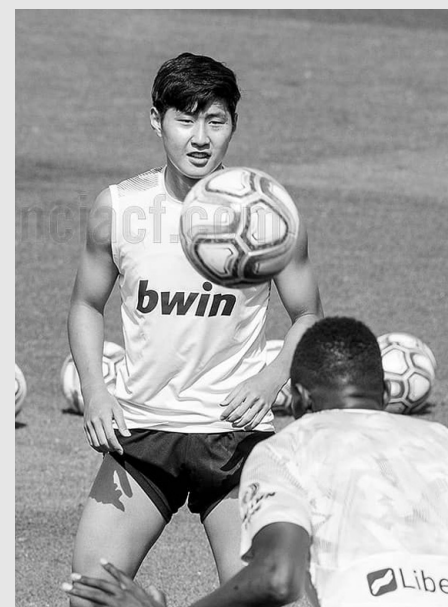


뉴스 1

'이강인 2G 연속 결장' 그라나다와 2-2무

발렌시아, 12승11무1패

이강인이 2경기 연속 결장한 가운데 발렌시아는 또 무승부에 그치면서 승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 발렌시아는 5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린 2019-2020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그라나다와 2-2로 비겼다. 최근 3연패를 끊어냈다는 것은 소득이나 경기 막판 동점골을 내준 내용은 아쉬움이 남는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강인은 끝내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비야레알전에서 후반 34분 교체 출전했던 이강인은 지난 2일 애틀레틱 빌바오와의 홈 경기에 이어 2경기 연속 결장했다. 원정팀 발렌시아는 전반전 내내 단 하나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다. 다행인 것은 그라나다 역시 결정력이 좋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0-0으로 끝난 전반과 달리 후반전은 난타전이 펼쳐졌다. 후반 13분 그라나다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리드를 잡았으나 발렌시아가 4분 뒤 마누 바예호의 만회골로 균형을 다시



맞췄다. 그리고 발렌시아는 후반 23분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흐른 것을 근살로 게데스가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해 승부를 뒤집었다.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마지막에 발렌시아를 외면했다.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며 버티던 발렌시아는 후반 41분 프리킥 찬스에서 동점골을 허용, 아쉽게 승점 1점 획득에 그쳤다. 12승11무1패 승점 47점이 된 발렌시아의 순위는 9위다.

'타율 1위' KIA 김선빈, 주루 도중 허벅지 부상

1회초 교체...김규성 투입



'타율 1위' 김선빈(KIA)이 경기 중 부상상으로 교체됐다.

김선빈은 5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경기에 1번 2루수로 선발 출전해 시작하자마자 부상을 입었다. 1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김선빈은 상대 투수 마이크 라이트의 67째를 때렸다. 타구는 2루수 정면으로 향했다. 1루로 전격질주한 김선빈은 베이스 부근에서 NC 1루수 강진성의 다리에 걸리며 크게 넘어졌다. 김선빈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채 허벅지 쪽 고통을 호소했다. 맷 윌리엄스 감독 등 코칭스태프도 달려나와 걱정 가득한 시선으로 이를 지켜봤다. 결국 구급차가 그라운드에 들어와 김선빈을 이송했다. 김선빈을 대신해서는 김규성이 투입됐다.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 중인 김선빈은 4일 현재 타율 0.381로 이 부문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롯데 손아섭, 역대 최연소 1000득점 달성...구단 최초 만 32세 3개월 17일

롯데 자이언츠 외야수 손아섭이 역대 최연소 1000득점을 달성했다. 손아섭은 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 2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1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에 들어섰다. 우중간 안타로 출루한 손아섭은 후속 타자 전준우와 이대호의 연속 좌전안타, 김준태의 밀어내기 볼넷이 더해지며 경기 선제 득점을 올렸다. 이로써 개인 통산 1000득점을 기록한 손아섭은 만 32세 3개월 17일로 최정(SK)이 보유한 종전 최연소 기록(만 32세5개월26일)을 2개월 가까이 경신했다. 한편 롯데 선수 중 통산 1000득점 고지에 올라선 선수는 이날 손아섭이 처음이다.

뉴스 1